

6/30(목) 시편 110-114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서 세상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려고 권력을 주셨습니다(110:1-2).

그 뜻을 잊고 높아지려 할 때, 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110:2).

인간은 창조의 동역자로서 <다스림>에 동참합니다(창1:27)

각자 자리로 보내셔서 <왕업>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롬5:17, 딤후2:12, 계22:5).

다스림에 참여한다고(왕노릇) 해도 우리는 하나님아 아닙니다(111, 113편).

하나님은 하나님아시며, 인간은 그분께 속한 피조물입니다(114편).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111:10)”

지혜 없이는 <지금, 여기로 보내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위와 소유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나이나 연륜으로부터 오는 노련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세세히 묻고 순종하는 전 과정,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습득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112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요19:30).

우리가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원수>들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110:1,4-7, 계6:17)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다스림) 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 110편은 메시야와 관련된 것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다.

마22:44, 26:34 막12:36, 농20:42, 행2:34-35, 룸8:34, 앱1:20, 골3:1, ἵ1:3,13, 8:1, 10:12, 12:2 벤전 3:22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가꾸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습니까?

시편5권 (107–150편)

편	유형	편	유형
107	공동체 감사시	129	공동체 탄식시
108	혼합유형 (=57:1-11, 60:5-12)	130	개인 탄식시(참회)
109	개인 탄식시	131	신뢰의 노래
110	왕조 시편	132	다윗계약 제의기도문
111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3	지혜시편
112	지혜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4	제의기도문
113	찬양시	135	구속사 시편(찬양시)
114	찬양시	136	구속사 시편(찬양시, 공동체 감사시)
115	제의 기도문	137	공동체 탄식시
116	개인 감사시편	138	개인 감사시
117	찬양시	139	개인 탄식시(지혜시)
118	개인 감사시(왕조)	140	개인 탄식시
119	토라(지혜) 시편	141	개인 탄식시
120	개인 탄식시	142	개인 탄식시
121	신뢰의 노래	143	개인 탄식시
122	시온의 노래	144	왕조시편(1-11)
123	공동체 탄식시	145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24	공동체 감사시	146	찬양시
125	신뢰의 노래(공동체 탄식시)	147	찬양시
126	공동체 탄식시	148	찬양시
127	지혜시편	149	찬양시
128	지혜시편	150	시편서 결론 송영